

최근 인천경제

2026년 6월



I 지역경제

1. 기업경기
2. 투자
3. 수출입
4. 기업금융
5. 고용

II 시민경제

1. 소비
2. 물가
3. 가계금융
4. 소상공인
5. 부동산



최근 인천경제 요약

I. 지역경제

주력 품목 수출 증가, 제조업 생산 반등 및 기업심리·선행지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동행지수 하락과 높은 재고 부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천 경기의 회복세는 여전히 제한적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기업심리·선행지수 개선에도 동행지수 하락, 재고 부담 가중으로 경기 회복 동력 제한

(투 자) 전국 설비투자 확장세에도 건설투자 위축과 인천 건설수주 부진이 이어지며 투자 회복 지연

(수 출 입) 인천 주력 품목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지속, 전국은 반도체 주도로 월간 수출 신기록 경신

(기업금융) 대기업 중심 기업 대출잔액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은 안정적이나 어음부도율 급등에 유의

(고 용) 임금근로자 증가와 자영업자 감소세 완화로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 흐름 지속

II. 시민경제

소비·소상공인 심리 반등에도 불구하고, 실물 소비 둔화와 대외 충격에 따른 물가 부담, 전세 중심 주거비 부담 가중 등으로 민생 경기의 회복 체감은 여전히 더딘 모습

(소 비) 전월 대비 소비심리는 반등했으나 소비지수 감소와 부진 업종 확대로 실물 소비 회복 지연

(물 가) 대외 충격에 따른 석유류 급등을 중심으로 공업제품 서비스 물가까지 오르며 물가 상승폭 확대

(가계금융) 신규 건수 감소에도 신규 약정액·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로 대출잔액 증가, 건전성 안정세 유지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며 회복세는 약한 흐름

(부 동 산) 주택 거래는 평년보다 활발하나 매매 포함 전세 강세가 엇갈리며 전세 중심 주거비 부담 확대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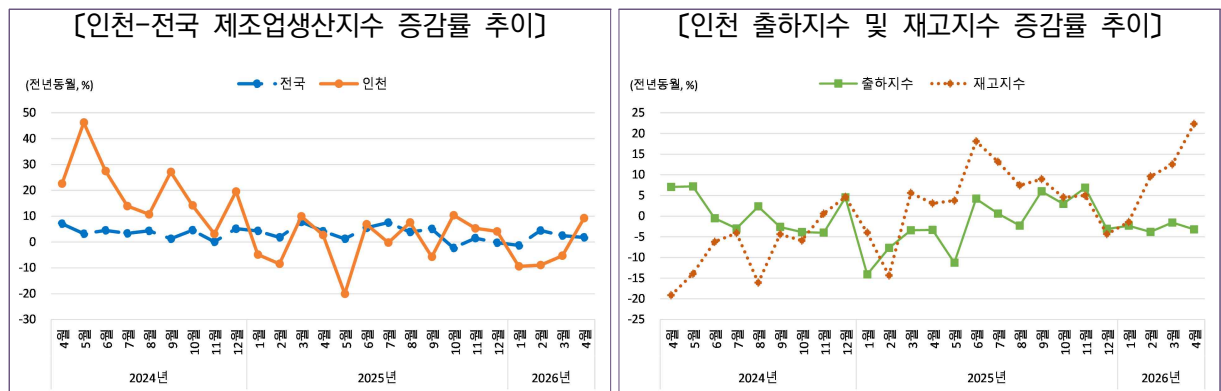
류동훈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제조업 생산, 기업심리·선행지수 개선에도 동행지수 하락, 재고 부담 가중으로 경기 회복 동력 제한

- '26.4월 인천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3%, 전월대비 5.5% 증가하여 163.8을 기록
 - 인천 광공업 생산지수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업종은 의약품(44.9%), 자동차(7.3%), 전자·통신(4.1%) 등이며, 기계장비(△37.5%), 고무·플라스틱(△5.8%), 의복·모피(△14.0%) 등 업종에서 감소
 - 인천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14.9로 전년동월대비 3.2% 감소, 전월대비 1.1%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지수(계절조정)는 전년동월대비 22.3%, 전월대비 13.9% 증가하여 138.1을 기록
- (전국) '26.4월 반도체 등 IT품목 호조로 광공업이, 전 업종 증가세에 힘입어 서비스업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여 전반적 산업 생산이 성장세를 이어갔고,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도 증가세 유지
 - 전국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자동차(△7.1%), 석유정제(△20.5%), 고무·플라스틱(△5.7%) 등에서 감소, 반도체(13.0%), 금속가공(7.7%), 의약품(12.4%) 등에서 증가하여 광공업(1.5%) 증가세 지속
 - 전국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업종 없이 전문·과학·기술(9.4%), 금융·보험(5.5%), 정보통신(3.8%), 도소매(3.1%) 등 전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은 전월(5.4%)보다 둔화된 3.5%를 기록

(p:잠정치, 소매판매액지수(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는 불변지수 기준)

전월비, % 전년동월비, %	전 국						
	전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소매판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26.3월 ^p → 4월 ^p	0.4 → △0.6	0.6 → △0.7	1.5 → △1.0	1.9 → △3.6	10.2 → △11.1	0.4 → 0.0	△1.3 → △1.1
	3.7 → 2.4	3.9 → 1.5	5.4 → 3.5	5.0 → 1.6	15.2 → 1.6	2.2 → 4.5	1.4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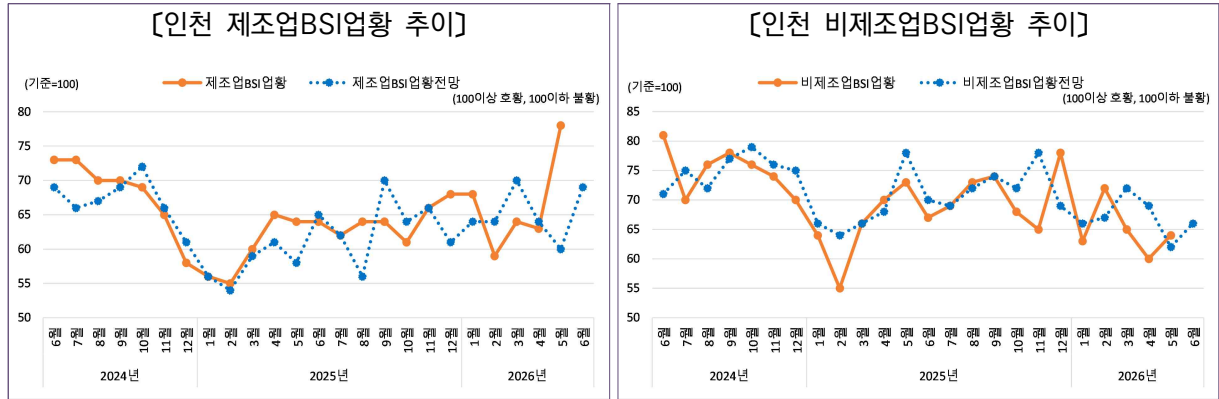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인천광역시 제조업생산지수]

2020=100 (전년동월,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연간	연간	12월	1월	2월	3월 ^p	4월 ^p	
생산지수	119.1 (2.0)	146.1 (22.7)	146.3 (4.1)	127.9 (△9.4)	129.5 (△8.9)	155.2 (△5.3)	163.8 (9.3)	5.5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115.5 (3.0)	119.2 (3.2)	118.8 (△3.1)	106 (△2.3)	110.7 (△3.8)	113.7 (△1.6)	114.9 (△3.2)	1.1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104.1 (7.5)	108.8 (4.5)	114.2 (△4.4)	110.7 (△1.4)	122.2 (9.6)	121.2 (12.5)	138.1 (22.3)	13.9

- 주 1) () 연간자료의 경우 전년대비 증감률, 월간자료의 경우 계절조정값을 활용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는 잠정치
 2) 전월대비는 최근 제조업생산지수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3)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반영으로 일부 시계열 변경)

- 인천 제조업 BSI 실적은 전월대비 15p, 전년동월대비 14p 증가하였고, 비제조업 BSI 실적은 전월대비 4p 증가, 전년동월대비 9p 감소하였으며, BSI 전망은 전월대비 제조업은 9p, 비제조업은 4p 증가
- 제조업 업황BSI 전망(S.A.): ('26년 3월) 70 → (4월) 64 → (5월) 60 → (6월) 69
 - 비제조업 업황BSI 전망(S.A.): ('26년 3월) 72 → (4월) 69 → (5월) 62 → (6월) 66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인천광역시 부문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26년					2026년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5월
제조업 매출	72	77	85	93	제조업 내수판매	70	81	86	89
제조업 생산	78	80	89	91	제조업 수출	76	81	93	94
제조업 신규수주	70	71	76	90	제조업 원자재구입가격	136	141	155	157
제조업 채산성	66	62	61	62	제조업 자금사정	71	70	70	73
제조업 판매가격	97	94	99	107	비제조업 매출	87	74	69	71
제조업 제품재고	104	98	97	98	비제조업 채산성	80	68	66	74
제조업 설비투자	90	88	93	94	비제조업 인력사정	84	81	79	81
제조업 인력사정	97	93	93	93	비제조업 자금사정	79	70	66	78
제조업 가동률	75	78	85	95					

주 1) 본 BSI는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많고, 100보다 작을 때는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많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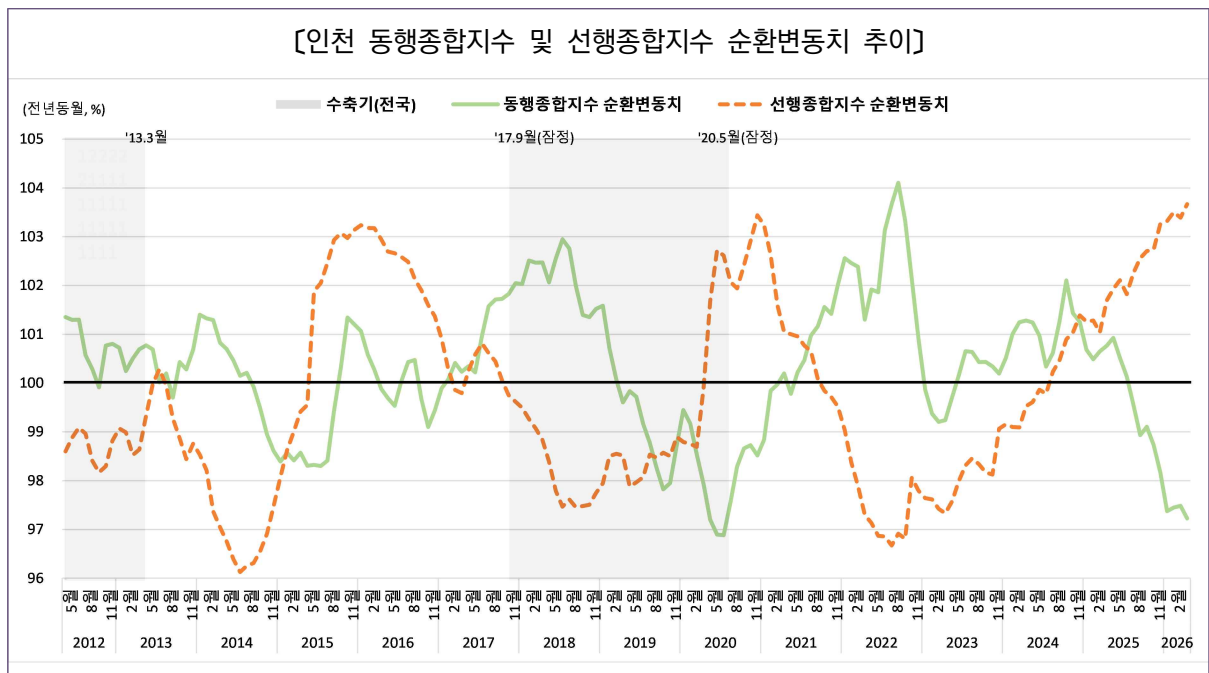
2)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인천광역시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실적 BSI]

기준=100 (전년동월, %)	2025년						202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제조업 업황	62 (△15.1)	64 (△8.6)	64 (△8.6)	61 (△11.6)	66 (1.5)	68 (17.2)	68 (21.4)	59 (7.3)	64 (6.7)	63 (△3.1)	78 (21.9)
비제조업 업황	69 (△1.4)	73 (△3.9)	74 (△5.1)	68 (△10.5)	65 (△12.2)	78 (11.4)	63 (△1.6)	72 (30.9)	65 (△1.5)	60 (△14.3)	64 (△12.3)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1%(전년동월대비 △3.57%) 하락하였으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9%(전년동월대비 1.97%) 상승
 - '26.4월 전월대비 동행종합지수 0.3p 감소, 선행종합지수 0.3p 증가하여 각각 97.2, 103.7을 기록
 - 동행종합지수 구성 지표 중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컨테이너처리량,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지표가 증가하였고, 전력사용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수출액, 수입액 지표는 감소
 - 선행종합지수 구성 지표에서 수출입물가비율, 장단기금리차 지표가 증가하였고,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건축허가면적, 금융기관유동성 지표는 감소했으며,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전월과 동일
 - 인천 동행종합지수는 고용·생산 등 실물경기와 부동산·물류 지표 호조에도, 내수 소비와 수출입 등 대외부문 부진으로 하락 전환한 반면, 선행종합지수는 고용·건설투자 및 시중 유동성 지표 위축에도, 교역조건·금리 등 대외·금융 여건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
 - 동행 및 선행 순환변동치의 상반된 움직임으로 양 지수 간 격차가 6.5p로 전월대비 확대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격차가 유지되며 동행·선행 지표 간의 괴리 기조 지속('26.1월 5.9p → 2월 6.0p → 3월 5.9p)
- * 2분기 이상 순환변동치가 증가하면 경기 확장기, 감소하면 경기 수축기로 판단(통계청 경기종합지수 해설 참고)



주 1)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계절조정지수를 적용하여 과거 선행·동행 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가 소폭 변경되었음
 2) 자료 : 인천경기종합지수 재구성, 인천연구원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라 가중치 변경 및 연안보정 반영으로 일부 시계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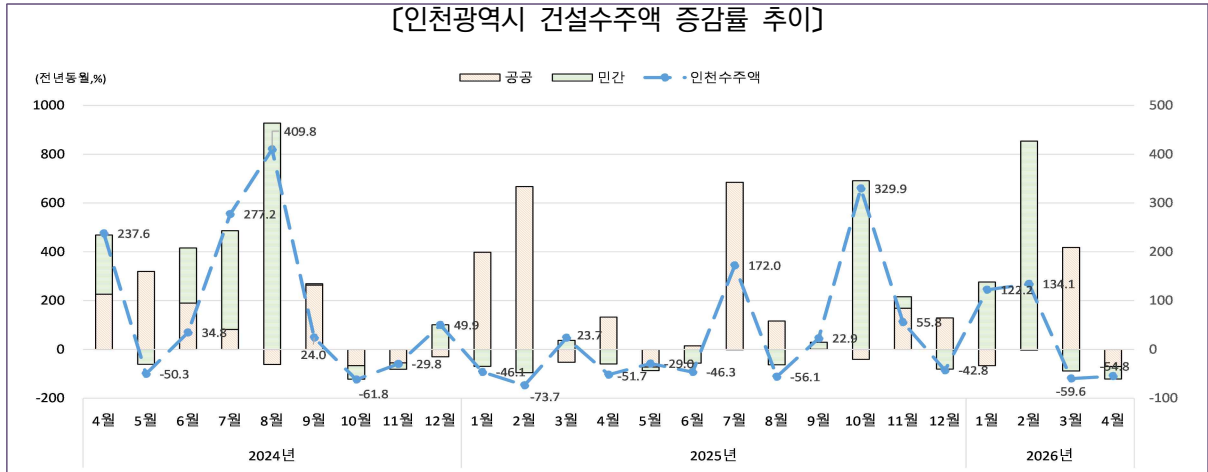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경기종합지수]

2020=100	2025년							2026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p)	100.5 (△0.4)	100.1 (△0.4)	99.6 (△0.5)	98.9 (△0.7)	99.1 (0.2)	98.7 (△0.4)	98.2 (△0.5)	97.4 (△0.8)	97.5 (0.1)	97.5 (0.0)	97.2 (△0.3)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p)	102.1 (0.2)	101.8 (△0.3)	102.3 (0.5)	102.6 (0.3)	102.7 (0.1)	102.7 (0.0)	103.3 (0.6)	103.3 (0.0)	103.5 (0.2)	103.4 (△0.1)	103.7 (0.3)

주 1) 종합지수 산출시 사용하는 데이터의 변경과 추세 산출시 PAT법을 적용하는 관계로 종합지수가 변경될 수 있음
 2) 자료: 인천경제동향, 인천연구원

전국 설비투자 확장세에도 건설투자 위축과 인천 건설수주 부진이 이어지며 투자 회복 지연

- '26.4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발주자별 건설수주액은 공공 69.9% 감소, 민간 51.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4.8% 감소, 전월대비 공공은 88.7% 감소, 민간은 101.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6.2% 감소
- 전년동월 기준 공공 부문은 관공서, 발전·송전, 기타건축 등 수주가 줄었고, 민간 부문도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학교·병원 등 수주가 줄었으며,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62.0% 감소, 토목 부문 44.1% 증가



자료 : 건축허가및통계, 국토교통부

- (전국) 기계류·운송장비 호조로 설비투자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공사실적 부진으로 건설투자 감소세 지속
- 전년동월 기준 반도체 제조용 기계(41.1%), 컴퓨터 사무용 기계(36.6%) 등 투자 확대로 일반기계(12.4%), 전기 및 전자기기(5.1%) 투자가 늘어 기계류(10.4%) 성장세가 이어졌고, 자동차(10.7%) 등 호조로 운송장비(3.6%)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건설투자는 건설기성(△5.5%)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p:잠정치)

전월비, % 전년동월비, %	전 국					
	설비투자	기계류	운송장비	기계수주	건설기성	건설수주
'26.3월 ^p → 4월 ^p	1.7 → △3.6 9.8 → 8.1	△0.1 → 0.5 4.1 → 10.4	5.4 → △11.5 24.7 → 3.6	8.7 → △1.7 △2.2 → △7.6	△6.1 → △1.4 △5.8 → △5.5	13.3 → △4.0 36.2 → 39.3

[인천지역 건설동향]

(단위 : 천㎡, 억원, %, p는 잠정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연간	연간	12월	1월	2월	3월 ^p	4월 ^p	
건축허가면적		9,787 (32.2)	7,342 (△25.0)	1,749 (20.6)	355 (△6.0)	328 (35.6)	1,206 (207.2)	756 (△52.5)	△37.3
건축착공면적		5,279 (△7.8)	7,628 (44.5)	793 (13.7)	233 (86.7)	129 (△59.7)	535 (84.9)	1,006 (34.2)	88.1
건설수주액		85,507 (△20.4)	126,207 (47.6)	9,468 (△42.8)	10,978 (122.2)	7,071 (134.1)	4,830 (△59.6)	3,079 (△54.8)	△36.2
발주	공공	17,146 (△51.6)	15,103 (△11.9)	6,834 (129.2)	766 (△66.6)	2,472 (△2.6)	3,500 (417.6)	394 (△69.9)	△88.7
	민간	60,259 (△16.1)	111,104 (84.4)	2,634 (△80.6)	9,979 (276.4)	4,599 (853.9)	1,330 (△88.2)	2,685 (△51.3)	101.9
공종	건축	64,998 (△20.5)	93,292 (43.5)	7,567 (△22.9)	10,077 (289.4)	4,605 (520.1)	2,583 (△77.3)	2,412 (△62.0)	△6.6
	토목	20,510 (△20.1)	32,914 (60.5)	1,901 (△71.8)	901 (△61.7)	2,466 (8.3)	2,247 (284.8)	667 (44.1)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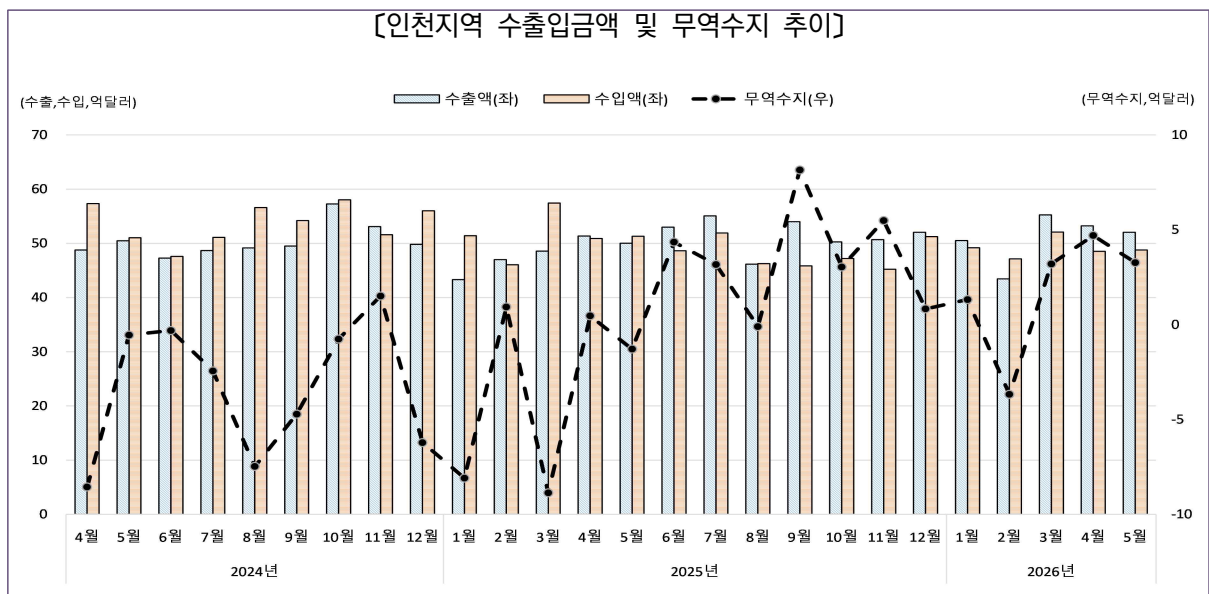
주 1)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의 () 연간 자료는 전년누계대비 증감률, 월간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건설수주액의 () 연간 자료는 전년대비 증감률, 월간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 자료: (1) 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청 (2)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국토교통부

인천 주력 품목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지속, 전국은 반도체 주도로 월간 수출 신기록 경신

- '26.5월 전년동월 기준 인천 수출액은 4.0% 증가, 수입액은 5.0%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 지속
 - 인천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9.9%), 철강판(△25.9%), 자동차부품(△5.9%) 등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6.0%), 의약품(15.6%), 비누치약및화장품(56.4%) 등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액 증가
 - 원유(71.3%), 반도체제조용장비(118.7%), 의약품(74.8%) 등 수입 품목이 크게 늘었으나, 최대 수입 품목인 반도체(△5.4%)와 천연가스(△61.3%) 등의 수입 감소로 인천 전체 수입액 감소세 지속
 - 수출액(4.0%)은 증가세, 수입액(△5.0%)은 감소세를 유지하여 무역수지(3.3억 달러) 흑자 지속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전국) 반도체 등 IT 품목 호조로 5월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 3개월 연속 800억 달러 상회
 - 전년동월대비 전국 수출액은 53.2% 증가한 877.5억 달러, 수입액은 20.8% 증가한 608.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69.5억 달러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200.3억 달러 확대
 - 20대 수출 품목¹⁾ 중 12개(반도체 169.4%, 컴퓨터 290.7% 등) 증가, 9대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중국·미국·아세안 등)에서 많이 늘었으며, 1~5월 누적 무역수지(1,019억 달러)는 역대 연간 최대 흑자를 조기 경신

[인천지역 수출입현황]

억달러 (전년동월%)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 (무역수지)
			1월	2월	3월	4월	5월	
수출액	595.24 (10.6)	601.52 (1.1)	50.52 (16.6)	43.45 (△7.5)	55.26 (13.8)	53.23 (3.7)	52.04 (4.0)	△2.2
수입액	637.68 (5.6)	593.46 (△6.9)	49.20 (△4.3)	47.13 (2.3)	52.07 (△9.4)	48.54 (△4.6)	48.76 (△5.0)	0.5
무역수지	△42.44	8.06	1.3	△3.7	3.2	4.7	3.3	△1.4

주 1) () 는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월간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자료: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1) (1)반도체(IT), (2)디스플레이(IT), (3)무선통신(IT), (4)컴퓨터(IT), (5)자동차, (6)차부품, (7)일반기계, (8)선박, (9)석유, (10)석유화학, (11)바이오헬스, (12)가전, (13)섬유, (14)철강, (15)이차전지, (16)전기기기, (17)비철금속, (18) 농수산물품, (19)화장품, (20)생활용품

- '26.5월 주요 수출품 중 자동차(△9.9%), 철강판(△25.9%) 등 일부 주력 품목의 부진에도 그 외 품목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6년 누계 증감률은 전월보다 0.6%p 낮아진 5.9%를 기록
- 수출액(전년동월대비)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반도체(6.0%), 자동차(△9.9%), 의약품(15.6%), 비누치약및화장품(56.4%), 철강판(△25.9%) 순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수출품목별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5.5월		2026.5월		2026년 누계(1월~5월)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증감률
	총계	5,002	△0.9	5,204	4.0	25,451	5.9
1	반도체	1,497	△1.9	1,587	6.0	7,344	4.3
2	자동차	727	15.7	656	△9.9	3,243	3.8
3	의약품	536	12.1	620	15.6	3,159	21.1
4	비누치약및화장품	144	△12.4	225	56.4	964	28.0
5	철강판	252	△2.1	187	△25.9	962	△12.1
6	무선통신기기	120	△34.5	140	16.2	733	△14.4
7	금은및백금	29	76.3	134	355.5	722	637.6
8	반도체제조용장비	99	31.2	104	4.5	378	△18.3
9	석유화학중간원료	47	△55.4	89	87.1	511	81.4
10	자동차부품	89	5.3	83	△5.9	415	△11.4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26.5월 전년동월대비 인천지역 국가별 수출액 비중 상위 5개국은 중국(△5.7%), 베트남(27.5%), 미국(△8.3%), 홍콩(100.7%), 대만(△16.3%) 순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국가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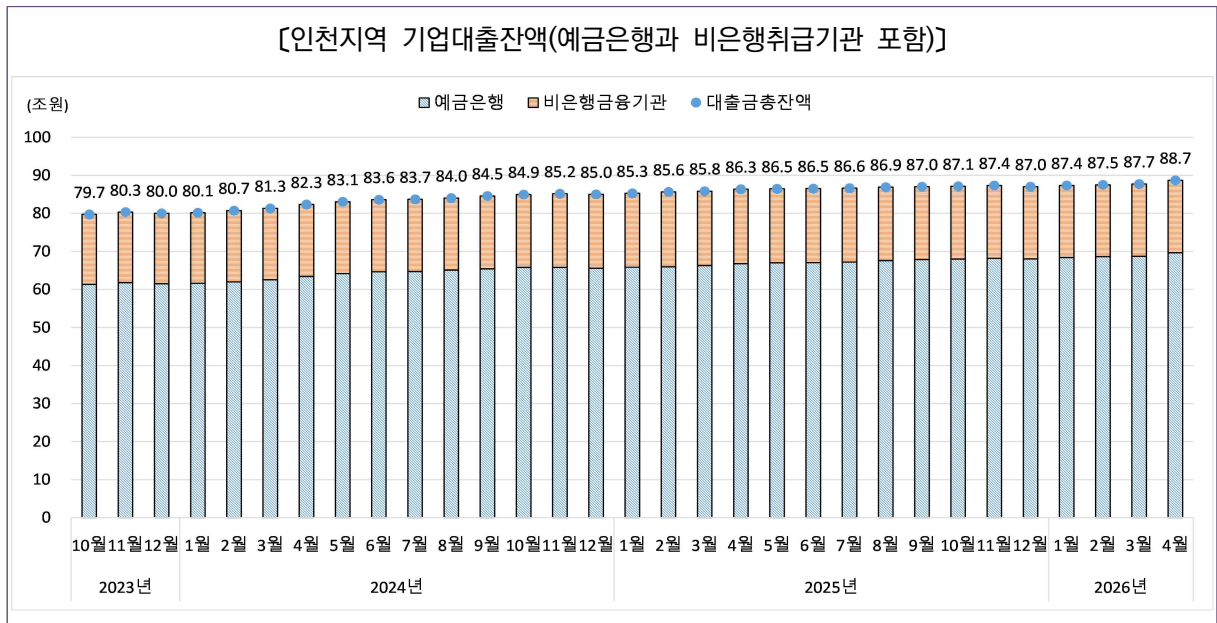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5.5월		2026.5월		2026년 누계(1월~5월)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증감률
	총계	5,002	△0.9	5,204	4.0	25,451	5.9
1	중국	1,022	△29.9	964	△5.7	5,151	△0.7
2	베트남	705	69.4	898	27.5	3,758	28.5
3	미국	884	△8.7	811	△8.3	4,147	9.2
4	홍콩	128	7.3	257	100.7	1,356	102.0
5	대만	274	4.8	229	△16.3	1,026	△28.6
6	싱가포르	174	△2.4	181	3.7	999	14.4
7	스위스	119	110.7	146	22.0	638	48.2
8	인도(인디아)	143	21.5	143	0.1	718	△1.0
9	일본	110	△15.9	116	5.9	648	22.4
10	튀르키예	113	21.8	106	△5.8	438	△27.0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대기업 중심 기업 대출잔액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은 안정적이나 어음부도율 급등에 유의

- '26.4월 인천시 기업 대출잔액은 88조 6,91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전월대비 1.1% 증가
 - 전월 기준 기업대출잔액은 예금은행(1.3%), 비은행(0.5%)이 모두 늘며 전체 대출잔액 증가세 지속
 - 대기업 대출잔액은 전년동월대비 15.92%, 전월대비 9.65% 증가하여 8조 4,156억 원을 기록
 -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0조 2,76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1%, 전월대비 0.31% 증가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 '26.4월 인천시의 어음부도율은 전월대비 7.16%p 증가,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1%p 증가
 - '26.4월 어음부도액은 업종별로 비제조업(1,015.6억 원)에 집중되고, 사유별로는 위·변조(1,001.0억 원), 예금부족(84.0억 원) 사유가 늘어남에 따라, 전월대비 1,020.2억 원 증가한 1,125.9억 원을 기록

[인천지역 기업대출잔액 지표]

십억원 (전년동월, %)		2023 연간	2024 연간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p)
				12월	1월	2월	3월	4월	
예금은행	전체	61,541 (5.8)	65,595 (6.6)	68,014 (3.7)	68,382 (3.8)	68,622 (4.0)	68,743 (3.7)	69,634 (4.3)	1.3
	중소기업	56,255 (4.9)	59,536 (5.8)	61,394 (3.1)	61,493 (3.1)	61,673 (3.1)	61,912 (2.9)	62,166 (2.9)	0.4
비은행 취급기관	전체	18,482 (5.4)	19,391 (4.9)	18,986 (△2.1)	18,975 (△2.2)	18,851 (△4.2)	18,959 (△3.0)	19,057 (△2.6)	0.5
	중소기업	17,666 (4.7)	18,659 (5.6)	18,110 (△2.9)	18,066 (△2.8)	17,997 (△4.3)	18,115 (△3.2)	18,110 (△3.1)	△0.0
어음 부도율	인천	0.16	0.25	0	0.01	0.04	0.66	7.82	7.16
기업대출 연체율	인천	0.22	0.27	0.29	0.28	0.32	0.29	0.3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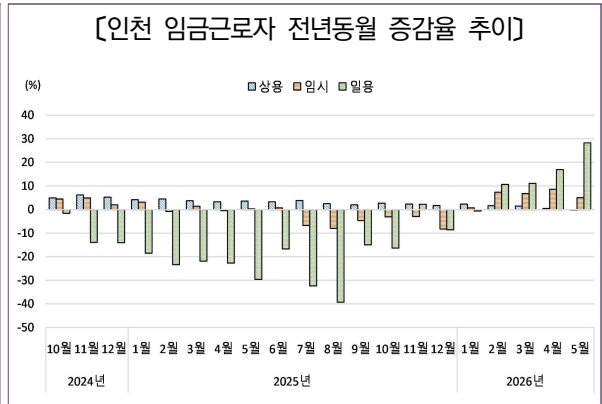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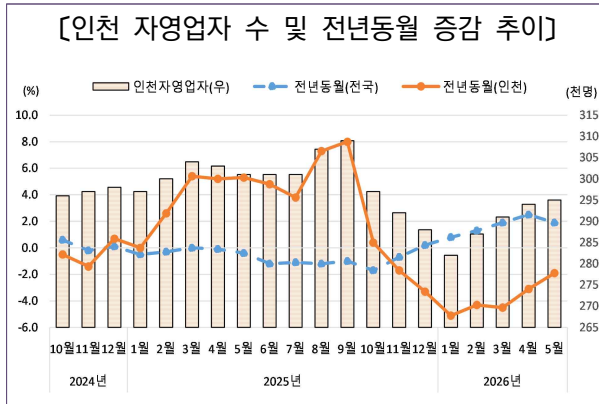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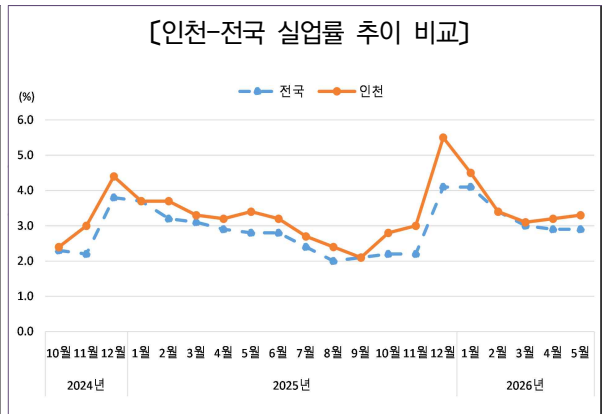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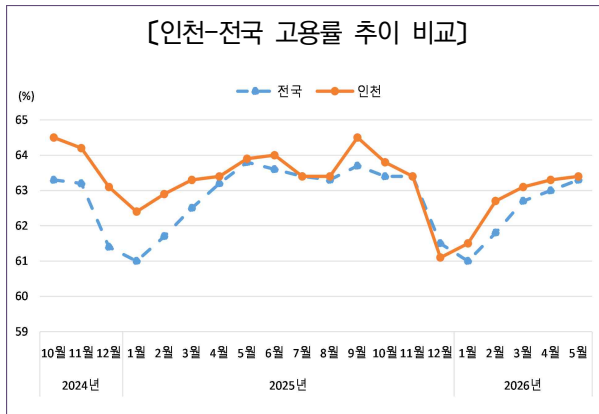
주 1)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비은행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기타

3) 자료: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임금근로자 증가와 자영업자 감소세 완화로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 흐름 지속

- '26.5월 인천시 고용률은 63.4%(전국 63.3%)로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3%(전국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전월대비 0.1%p 증가
 - 남성 고용률은 전월대비 0.3%p 감소한 71.9%를 기록, 여성 고용률은 55.1%로 전월대비 0.5%p 증가
- 인천시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0%,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 전년동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상용(△0.2%)이 감소한 반면 임시(5.1%), 일용(28.3%)은 증가하였고, 자영업자는 295.3천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전월보다 0.3% 늘어 '26.1월 이후 증가세 유지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인천지역 고용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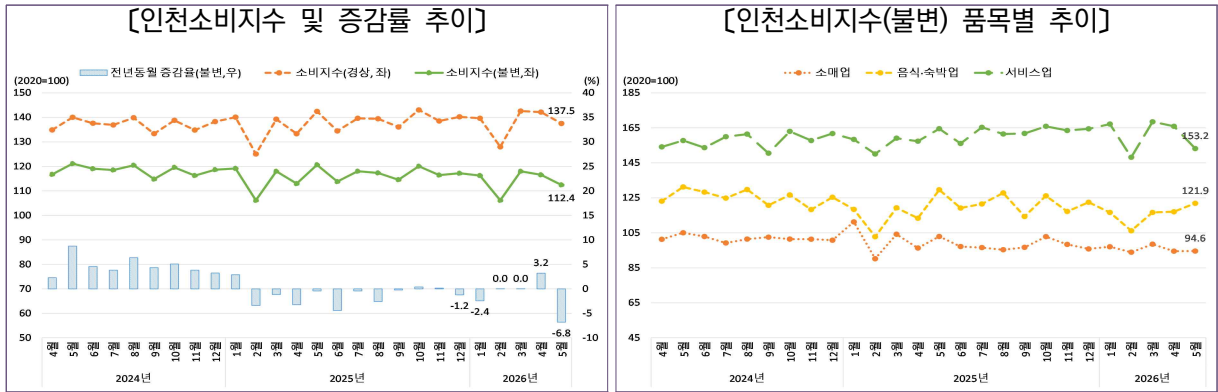
% (전년동월차,%p)	2023 연간	2024 연간	2025년	2026년					전월차 (%p)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고용률	63.1 (0.4)	63.5 (0.4)	61.1 (△2.0)	61.5 (△0.9)	62.7 (△0.2)	63.1 (△0.2)	63.3 (△0.1)	63.4 (△0.5)	0.1
남자	72.3 (△0.2)	72.0 (△0.3)	71 (△0.8)	71.2 (0.0)	72 (0.9)	72 (0.0)	72.2 (0.1)	71.9 (△1.1)	△0.3
	54.1 (1.0)	55.2 (1.1)	51.4 (△3.0)	52 (△1.7)	53.5 (△1.3)	54.3 (△0.5)	54.6 (△0.2)	55.1 (0.2)	
실업률	3.2 (△0.1)	3.3 (0.1)	5.5 (1.1)	4.5 (0.8)	3.4 (△0.3)	3.1 (△0.2)	3.2 (0.0)	3.3 (△0.1)	0.1

주 1) 증감은 소수점 한자리 수에서 반올림,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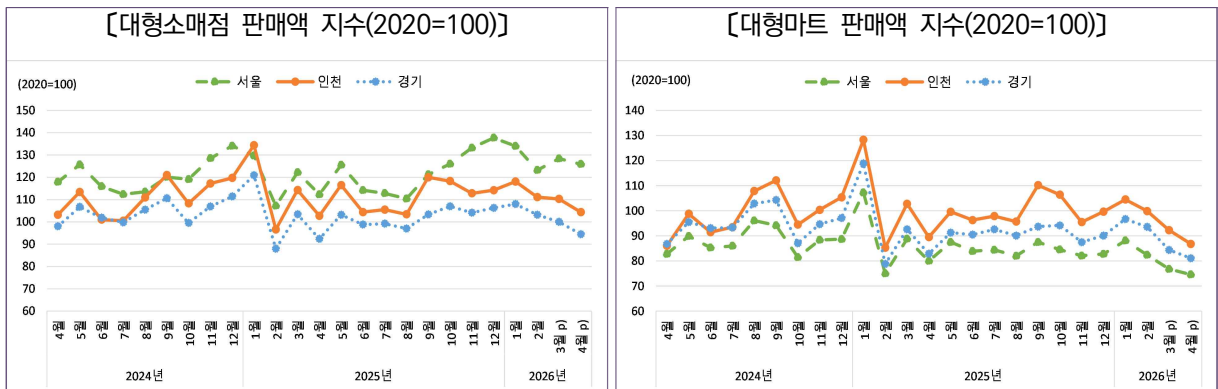
전월 대비 소비심리는 반등했으나 소비지수 감소와 부진 업종 확대로 실물 소비 회복 지연

- '26.5월 인천소비지수(불변)는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전월대비 3.6% 감소하여 112.4를 기록
 - 품목별 지수는 전년동월 기준 소매업(△8.1%), 서비스업(△6.9%), 음식·숙박업(△6.0%) 모두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 음식·숙박업(4.1%)과 소매업(0.1%)은 증가, 서비스업(△7.7%)은 감소



자료 : 신용/체크카드 결제 정보, 신한카드

- '26.4월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가 전월보다 나란히 줄며, 수도권 대형유통 소비 위축세 유지
 - '26.4월 인천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했으나 전월대비 5.4% 감소, 대형마트는 전년동월대비 3.0%, 전월대비 6.0% 감소, 수도권 다른 지역의 대형유통 판매도 유사한 둔화 흐름 지속
 - 전년동월 기준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서울(12.1%), 경기(2.3%), 인천(1.7%) 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경기(△2.2%), 인천(△3.0%), 서울(△6.8%) 순으로 판매 감소 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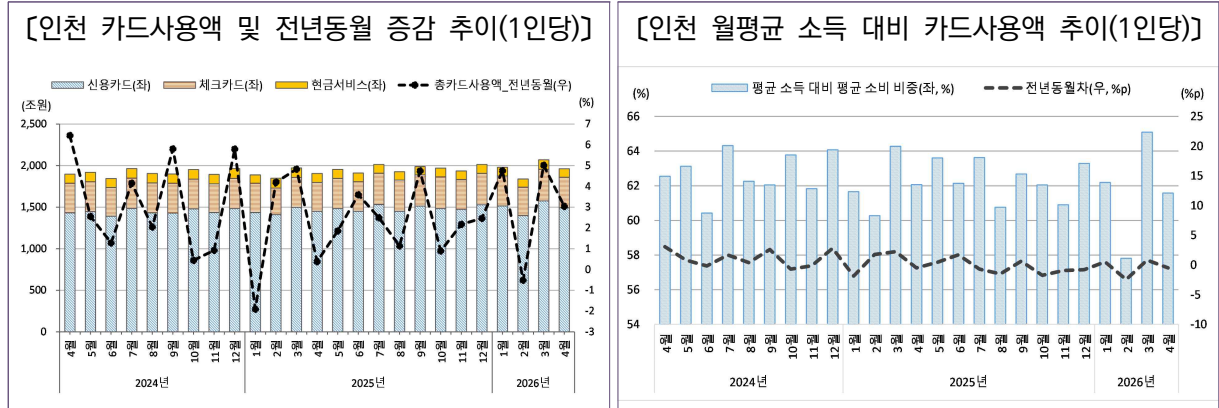
자료 :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청 (* 매월 발표되는 지수는 잠정치(p)로 2개월 후에 확정)

- '26.5월 인천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7.4p 상승하여 105.0을 기록
 - 인천 소비자심리지수 구성지수에서 가계수입전망(1.8p), 생활형편전망(1.6p), 현재경기판단(1.4p), 향후경기전망(1.2p), 현재생활형편(1.1p), 소비지출전망(0.3p) 모두 증가하여 소비심리지수 상승

(전년동월, p)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인천 소비자 심리지수	107.2 (10.6)	109.5 (10.8)	111.7 (17.5)	109.9 (25.6)	109 (22.3)	111.5 (21.3)	107.9 (18.7)	97.6 (9.2)	105.0 (7.5)	7.4

- 주 1) 소비자심리지수 100은 표준화구간(2003~2021년) 중 장기평균을 의미
 2)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작으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음(나쁨)을 의미
 3) 자료: 소비자동향조사(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

- '26.4월 전년동월 기준 1인당 카드 총소비액은 3.0% 증가,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9% 증가하여 1인당 월평균 소득 대비 카드사용액 비중의 차는 전년동월대비 0.5%p 축소
 - 세부적으로는 전년동월 기준 체크카드(6.1%), 신용카드(2.8%) 증가, 현금서비스(△3.9%)는 감소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p.13 참조)

- 전년동월 기준 6개 업종에서 성장세를 보였고, 4개 업종이 주의, 2개 업종이 위기를 기록
 - 주의 업종으로 슈퍼(△5.14%), 기타소매(△7.00%), 교통운송(△9.36%), 문화관광(△9.96%)이 있으며, 위기 업종은 대형종합소매(△13.44%), 가전가구 (△15.97%)로 구성

[인천지역 업종별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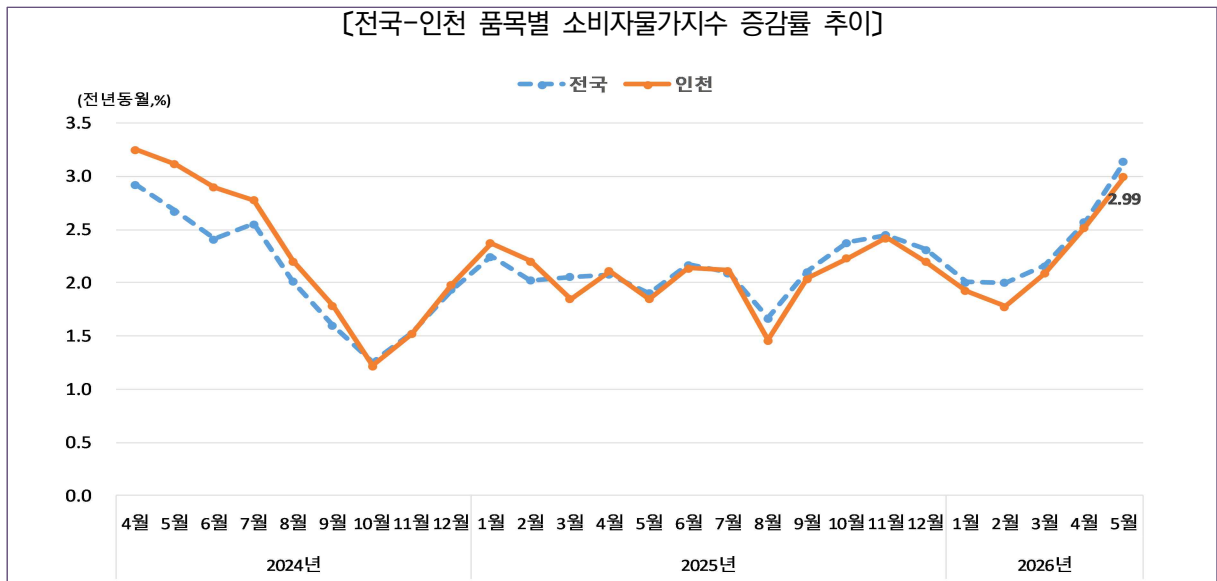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순위	업종*	'25.3월 ~ '25.5월		'26.3월 ~ '26.5월		'26년 누계(1월~5월)	
		합계	전년동월비	합계	전년동월비	합계	전년대비
	총계	63,974	0.52	65,091	1.75	106,345	1.43
1	자동차방문판매등	264	17.75	343	29.86	563	29.73
2	SSM	438	△17.29	563	28.63	951	30.65
3	인테리어	662	△2.54	737	11.41	1,119	8.61
4	의류잡화	1,421	3.52	1,564	10.07	2,428	10.82
5	보건의료	9,861	9.2	10,778	9.31	17,643	9.26
6	자동차기계장비	9,175	△2.9	10,019	9.2	15,725	4.8
7	농수축협	104	5.23	108	3.62	172	2.94
8	교육	2,750	8.72	2,844	3.42	4,784	4.32
9	스포츠시설	1,210	△4.92	1,249	3.28	1,807	1.65
10	식품류판매	3,555	5.99	3,645	2.54	6,260	3.29
11	여가오락	800	△14.54	815	1.89	1,215	1.07
12	주점	340	△0.57	345	1.44	553	△1.18
13	편의점	3,051	△0.05	3,086	1.14	4,936	0.95
14	식음료점	13,241	△1.07	13,341	0.75	21,617	2.1
15	생활서비스·금융·정보통신	1,573	2.07	1,584	0.67	2,583	1.6
16	PC방·노래방	386	△2.14	384	△0.35	635	△2.01
17	숙박	464	△9.74	449	△3.31	781	△4.08
18	슈퍼	3,526	△1.27	3,345	△5.14	5,585	△5.88
19	기타소매	2,740	6.19	2,549	△7.00	4,422	△5.84
20	교통운송	409	△23.12	371	△9.36	602	△15.5
21	문화관광	1,876	25.02	1,689	△9.96	3,078	△4.38
22	대형종합소매	5,265	△7.4	4,558	△13.44	7,716	△12.21
23	가전가구	863	△19.24	725	△15.97	1,169	△24

* 업종별 세부 분류는 부록 참고. :성장(5%~). :관찰(△5%~5%) :주의(△10%~△5%). :위기(△10%). 자료 : 카드결제정보,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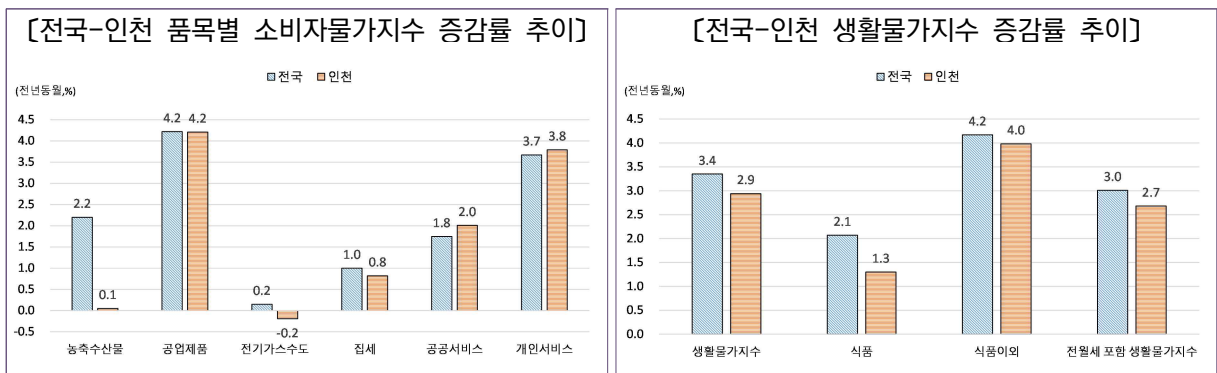
대외 충격에 따른 석유류 급등을 중심으로 공업제품·서비스 물가까지 오르며 물가 상승폭 확대

- 농축수산물 감소세 진정과 서비스 오름폭 확대 속에, 대외 충격에 따른 석유류 등 상품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되었고, 전국 소비자물가도 오름세를 키우며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 '26.5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99%로 전월 증가율 대비 0.47%p 확대되었으며,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도 전월대비 0.57%p 상승하여 3.14%를 기록
 - 전년동월대비 축산물(4.3%)의 상승 폭 둔화와 농산물($\Delta 2.3\%$)·수산물($\Delta 0.5\%$)의 하락 폭 축소로 농축수산물(0.1%)이 보합으로 전환되었고, 석유류(25.1%)의 큰 폭 상승으로 공업제품(4.2%) 상승 폭이 확대됨에 따라 상품 물가는 전월대비 0.49%p 상승한 3.0%를 기록
 - 서비스 품목에서는 집세(0.8%)의 안정세 속에 개인서비스(3.8%)와 공공서비스(2.0%)의 상승 폭이 동반 확대됨에 따라, 전체 서비스 물가는 전월대비 0.48%p 상승한 3.0%를 기록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 '26.5월 인천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94%, 전월대비 0.14% 증가하여 123.32를 기록
 - 품목별 생활물가는 전년동월 기준 식품 1.3%, 식품 이외 4.0%, 전월세 포함 2.7% 증가
 - 인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국보다 0.41%p 낮았으며, 세부적으로 식품($\Delta 0.77\% p$), 식품 이외($\Delta 0.19\% p$), 전월세 포함($\Delta 0.33\% p$) 등 모든 지수가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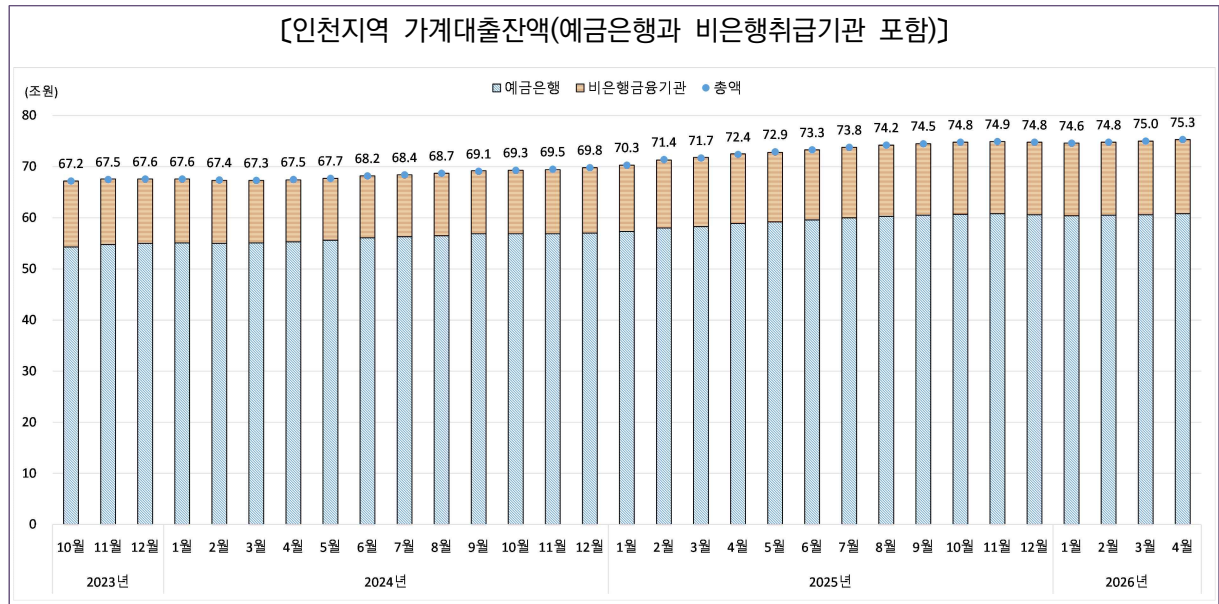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신규 건수 감소에도 신규 약정액·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로 대출잔액 증가, 건전성 안정세 유지

○ '26.4월 총대출잔액은 75조 3,04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 전월대비 0.4% 증가

- 예금은행 기준 전년동월대비 주택담보대출잔액은 3.7%, 기타대출잔액은 0.5% 증가
- 비은행금융기관 기준 전년동월대비 주택담보대출잔액은 16.3% 증가, 기타대출잔액은 4.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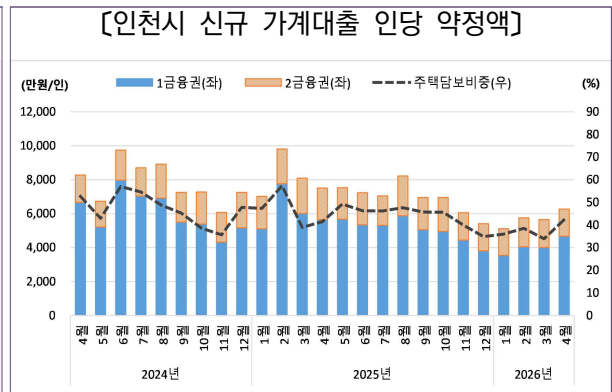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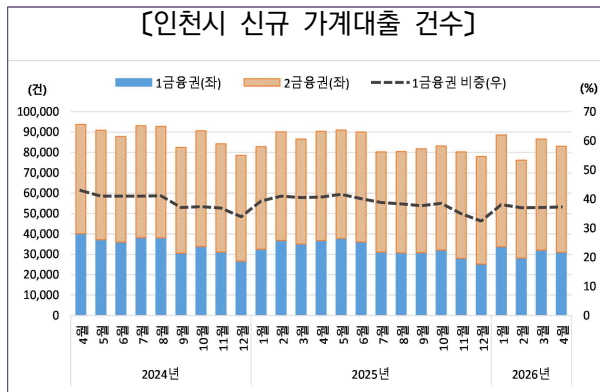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인천지역 가계대출잔액 지표]

사업원 (전년동월비, %)		2023 연간	2024 연간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p)
				12월	1월	2월	3월	4월	
예금은행		54,997 (2.8)	56,965 (3.6)	60,581 (6.3)	60,424 (5.4)	60,476 (4.2)	60,571 (4.0)	60,786 (3.3)	0.4
	주택담보 대출	46,440 (5.3)	48,942 (5.4)	52,639 (7.6)	52,517 (6.3)	52,604 (4.8)	52,705 (4.5)	52,894 (3.7)	0.4
	기타대출	8,558 (△8.7)	8,023 (△6.2)	7,942 (△1.0)	7,907 (△0.1)	7,872 (0.2)	7,866 (0.8)	7,892 (0.5)	0.3
비은행 취급기관		12,589 (△10.0)	12,824 (1.9)	14,203 (10.7)	14,225 (9.3)	14,301 (7.4)	14,410 (6.9)	14,518 (7.0)	0.8
	주택담보 대출	5,210 (△5.8)	6,341 (21.7)	8,116 (26.5)	8,174 (22.7)	8,260 (18.3)	8,392 (16.4)	8,533 (16.3)	1.7
	기타대출	7,379 (△12.8)	6,483 (△12.1)	6,087 (△5.2)	6,051 (△4.8)	6,041 (△4.5)	6,018 (△4.0)	5,986 (△4.1)	△0.5
연체율 (%)	국내은행 가계대출	0.21	0.27	0.25	0.27	0.3	0.27	0.2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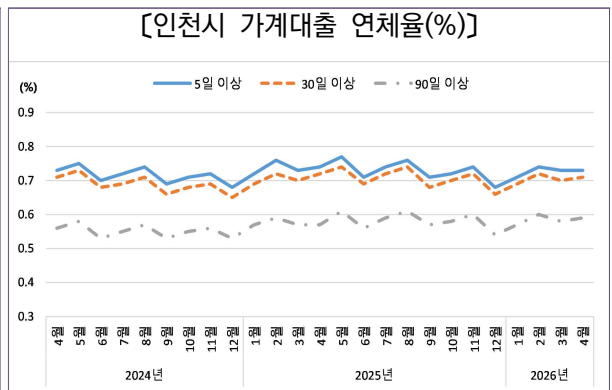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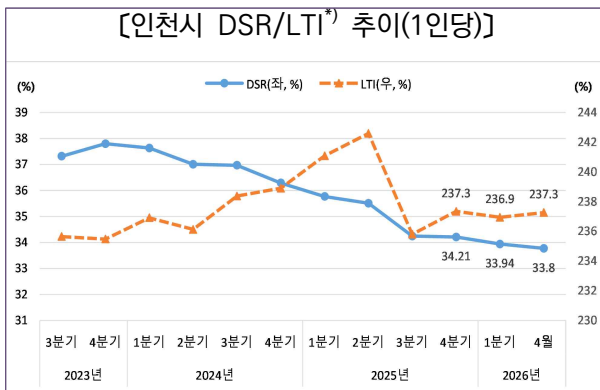
주 1) 비은행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기타
2)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 '26.4월 가계대출 신규 건수는 전 금융권에서 전월대비 감소한 가운데, 1인당 신규 약정액은 1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월대비 상승
 - '26.4월 가계대출 신규 건수는 1금융권 3만 995건, 2금융권 5만 2,023건이며, 전월대비 1금융권 3.4%, 2금융권 4.5%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금융권 15.7%, 2금융권 2.9% 감소
 - '26.4월에 발생한 1인당 신규대출 약정액은 6,268만 원이며, 1금융권 약정액은 2금융권의 약 2.92배 수준으로, 1금융권 4,670만 원, 2금융권 1,598만 원으로 구성
 - 1인당 약정액은 전년동월 기준 1금융권 17.4%, 2금융권 13.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6.6% 감소하였고, 전월 기준 1금융권 16.4% 증가, 2금융권 2.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8% 증가
 - 신규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2.4%로 전월대비 8.5%p, 전년동월대비 0.9%p 확대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²⁾

- '26.4월 인천시 차주의 DSR·LTI는 소폭이나 '25.4분기 대비 동반 하락한 반면, 연체율은 전월대비 0.01%p 오르는 데 그치며 전년동월과 같은 2.03% 수준에서 안정세 유지
 - '26.4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³⁾)은 '25.1분기 대비 2.00%p, '25.4분기 대비 0.44%p 하락한 33.77%를 기록하였으며,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하락 폭은 다소 둔화
 - '26.4월 인천시 연체율은 2.03%로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전월대비 0.01%p 상승
 - 채권의 부실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체 기간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5일 이상 0.73%, 30일 이상 0.71%, 90일 이상 0.59%로, 전월에 비해 5일 이상은 보합, 30일·90일 이상은 각각 0.0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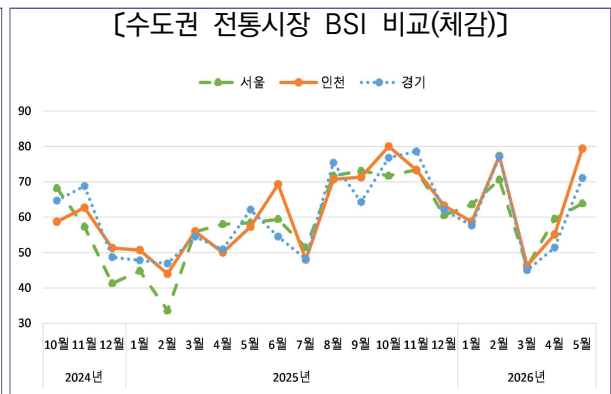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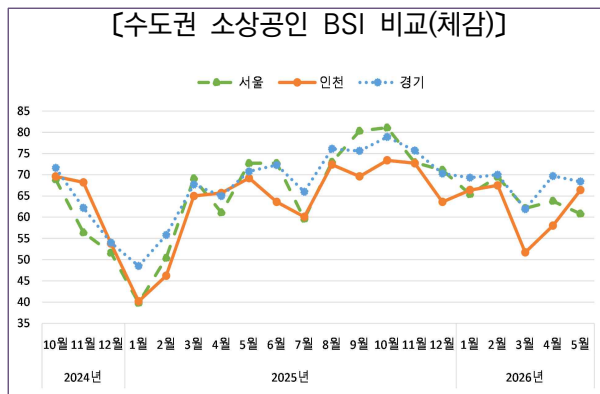
*) KCB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산출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

- 2)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시도별 가계신용 집계자료 구매계약을 통해 동 자료를 동향 작성 및 연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KCB 자료는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통계와 조사방식, 포괄범위 등이 달라 통계값에 차이가 존재
- 3) $DSR(\%) = (\text{차주 1인당 연간 대출상환액} / \text{차주 1인당 연간 소득}) \times 100$
 $LTI(\%) = (\text{차주 1인당 대출 잔액} / \text{차주 1인당 연간 소득}) \times 100$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며 회복세는 약한 흐름

- '26.5월 인천 소상공인 체감 BSI는 성수기 진입과 매출·정부 지원 여건 개선에 힘입어 두 달 연속 반등하였고, 6월 전망 BSI도 매출 회복 기대로 소폭 오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감
 - '26.5월 인천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전월대비 14.5% 증가(전년동월 △4.0%)하여 66.4를 기록하였고, '26.6월 전망 BSI는 85.3으로 전월보다 0.8% 증가(전년동월 3.4%)
- 인천 전통시장은 정부 지원 확대와 봄철 수요 회복으로 '26.5월 체감 BSI가 큰 폭 상승했으나, 6월 전망 BSI는 향후 경기 둔화 우려와 비수기 전환 등으로 하락하며 체감과 전망이 상반된 모습
 - '26.5월 인천의 전통시장 체감 BSI는 79.4로 전월대비 44.1% 증가(전년동월 38.6%), '26.6월 전망 BSI는 80.9로 전월대비 5.2% 감소(전년동월 16.7%)



자료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전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BSI 지표〕

	소상공인					전통시장			
	2026년					2026년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5월
BSI	68.1	57.0	63.7	67.9	BSI	77.6	43.9	55.5	70.7
제조업	75.3	59.3	69.2	70.9	농산물	91.9	44.2	54.8	66.9
소매업	69.1	57.1	67.8	76.5	축산물	116.3	39.4	50.0	85.6
음식점	60.7	52.8	62.9	68.0	수산물	105.2	25.8	43.8	62.1
부동산	67.9	53.9	61.4	58.0	가공식품	88.1	41.2	57.8	68.9
전문 과학기술	77.7	70.3	58.6	67.2	의류, 신발	55.6	48.6	62.1	84.7
교육 서비스	79.4	80.5	70.3	78.9	가정용품	56.5	42.3	48.7	68.4
스포츠 및 오락	67.0	48.3	48.0	59.4	음식점	64.9	45.9	58.4	67.6
수리업	56.2	53.4	60.1	64.0	기타 소매업	65.6	55.6	61.2	67.9
개인 서비스	67.3	64.9	69.2	65.3					

주 1) BSI(Business Survey index): 현재 경기수준에 대하여 소상공인 9개 업종, 전통시장 8개 업종의 체감지수, 전화조사

2) BSI 조사업체: 2,400개 소상공인 및 1,300개 전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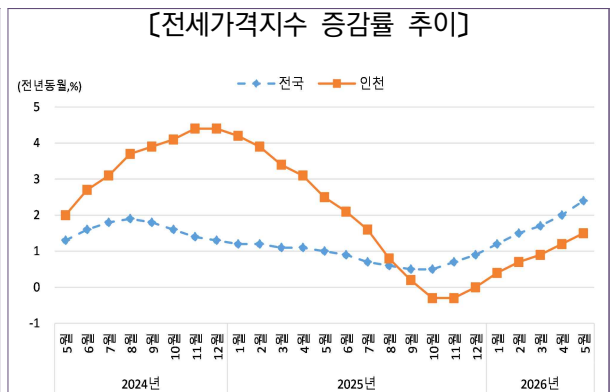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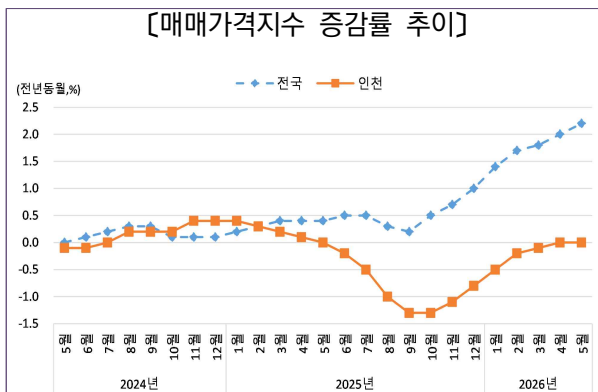
3) BSI 100이상은 경기 호전, 100미만은 경기 악화

4) 자료: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주택 거래는 평년보다 활발하나 매매 포함·전세 강세가 엇갈리며 전세 중심 주거비 부담 확대

○ 인천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관망세 지속으로 보합권에 머문 가운데, 전세가격은 매물 부족 등 수급 불균형으로 상승세를 키우며 매매와 전세가 서로 다른 방향의 흐름을 이어감

- '26.5월 인천 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며 전월대비로는 0.06% 내린 99.96을 나타냈고, 전세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4%·전월대비 0.27% 오르며 100.91로 집계
- 주택 유형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매매가격이 아파트(0.47%)와 단독(1.09%)에서 오른 반면 연립(△1.17%)은 내렸고, 전세가격도 아파트(2.58%)·단독(0.52%)이 상승한 가운데 연립(△0.66%)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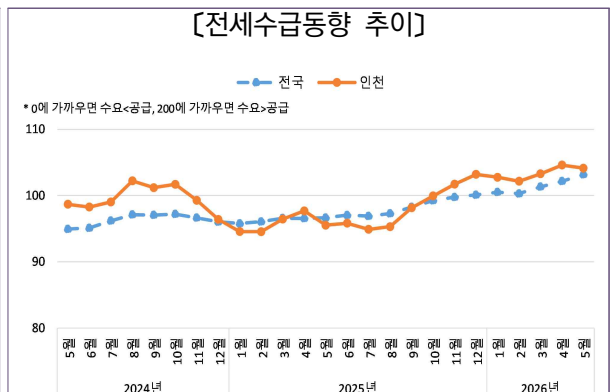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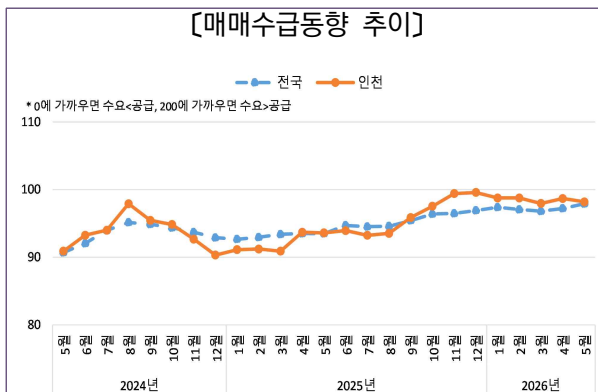


주 1) 지수 기준시점 변경(2025.01→2026.01)으로 증감률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 인천 매매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 반면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수요 우위가 유지됐으며, '26.4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하며 평년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지속

- 전월대비 매매수급은 아파트(△0.24%), 연립·다세대(△2.47%), 단독주택(△0.31%) 일제히 하락, 전세수급은 연립·다세대(0.80%)·단독주택(0.64%) 상승, 아파트(△0.68%) 하락하여 유형별로 엇갈림
- '26.4월 주택거래량은 4,507호로 전월대비 2.0%·전년동월대비 9.0% 늘었으며, 최근 3개년 4월 평균(3,919호)을 15.01% 웃도는 수준을 이어감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인천 주택거래량(매매)〕

동(호) 수 (전년동월, %)	2024년	2025년			2026년			
	평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주택거래량(인천)	3,579 (11.8)	3,272 (△7.9)	3,598 (15.5)	3,808 (39.6)	3,668 (66.3)	3,480 (12.4)	4,417 (4.4)	4,507 (9.0)

주 1) 주택거래량은 인천지역 주택유형(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 구분없이 매매인 거래를 합산한 값

2) 자료: 부동산거래현황, 한국부동산원

최근 인천경제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6년 6월 30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